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원영희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전문이사

전자정보 서비스 산업으로 봐야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전자정보 서비스 산업으로 봐야 한다. 전자정보 서비스 산업은 고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시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꺼내 활용하게 하는 여러가지 정보 서비스를 지칭하는 다소 확장되고 광범위한 산업 범위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생겨난 것은 1950년대 미육군에서 컴퓨터를 에어베이스라 하는데 착안하여 데이터베이스라 부르기 시작한 것에서 연

유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된 데이터베이스는 최근 정보 처리 속도의 고속화와 처리 용량의 대량화 등을 통해 문자나 숫자 정보를 정리하고 검색, 이용하는 종래의 틀에서 벗어나 그림이나 소리로 된 정보까지도 저장하고 찾아내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용하는 기술과 사회적 환경은 급속도로 변모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발전은 과거 수십년간 이룩해온 성과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불과 1980년대에 사용되던 대형의 컴퓨터는 요즘 개인용 컴퓨터만도 못한 형편이고 소프트웨어들도 다양하고 성능이 우수해져 우리 한글을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듯하다. 한글 처리가 제대로 되질 않으니 인쇄는 물론이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아주 먼 훗날의 일로만 생각되던 게 엇그제 같은 1980년대이다.

요즘 가끔 신문이나 잡지의 광고에서 보이는 1980년대의 전화요금과 같은 공공 요금청구서에서 흔히 보이던 이상하게 생긴 길쭉한 한글들이

컴퓨터로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이제 한글 모양도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한자의 처리도 손쉬워졌으며 그림으로 된 정보의 처리도 어렵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관점은 아직 1980년대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듯하다.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지는 정보가 다양해지고 데이터베이스의 용도도 데이터베이스 초기의 과학 기술 정보의 축적과 검색 그리고 기업의 경영에 활용되는 외에 값싸고 성능이 좋은 하드웨어의 보급이 각 가정으로 확대되어 여행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거나 오늘의 문화 행사 등과 같이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정보를 찾아 보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의 고속화와 이용의 용이함 등으로 정보의 축적과 이용이 일괄적인 방식에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과거의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전자우편의 활용은 이제 보편화되었으며, 온라인 게임, 온라인 바둑, 홈뱅킹, 통신 판매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다양하고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서비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게임, 홈뱅킹 등 신기술 포함해야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1980년대에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가 정보라는 말과 같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체적으로 정보 서비스 또는 전자 정보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을 포함시키기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적합치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물론 일부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다. 인터넷의 확산에 의한 정보 이용의 용이함과 함께 전세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제공이 간단해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다.

CD-ROM의 등장은 또한 어떠한가. 일본의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크게 다루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이미 과거에 다루어온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여러 형태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보 서비스들이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는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검색이 가능한 정보의 집합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정의속에는 이미 새로운 정보 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듯하나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 서비스에 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정보 형식과 접근 방법의 다양화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전반적으로 발전 단계에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로 전망이 밝다. 그러나 고전적인 개념의 데이터베이스 산업, 문자 중심의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제공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정보의 멀티미디어화와 하이퍼링크에 의한 검색 등으로 체계적인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현재의 기술로는 단순 검색을 하기 어려운 동화상 정보가 제공되기도 한다.

콘텐츠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 대신에 앞으로는 콘텐츠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해 본다. 새로운 용어는 아니다. 이미 멀티미디어와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인데 데이터베이스의 멀티미디어화와 더불어 수록되는 정보의 내용도 전문적 내용과 일반 생활에 관련된 가벼운 정보들을 두루 포함하는 정보 전달 매체로서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전자정보 서비스 산업으로 하고 여기에는 가치의 크고 적음에 관계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축적 및 전달되는 전자우편, 온라인 게임, 온라인 상거래 등을 포함하는 모

든 정보 서비스가 해당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대상물은 콘텐츠가 된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일방적인 정보가 주요 대상이라면, 앞으로의 정보 서비스에서 콘텐츠는 전문적인 제작사업자는 물론이며 정보를 사용하는 이용자 자신이 생산·제작자가 되는 다각화된 체제로 운영될 것이다.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전반적으로 발전 단계에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로 전망이 밝다. 그러나 고전적인 개념의 데이터베이스 산업, 문자 중심의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제공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향후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아닌 전자 정보서비스 산업 속에서 다면적인 성격의 콘텐츠로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제공하는 내용면에서는 차별화, 전문화, 다양화에 의해 국내의 이용자를 만족시켜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 시장을 향한 양질의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감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거름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으로의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MC**